

#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양상 연구\*

오선화\*\* · 한성우\*\*\*

## 〈차 례〉

1. 서론
2.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유형과 변이 자료
3.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4. 연변 지역 조선어의 변화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연변 거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서면 어휘조사를 바탕으로 어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변 지역 조선어는 함경북도 방언을 기층 방언으로 하여 형성된 이후 중국어와 북한어, 중국 조선어, 남한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영향은 어휘에 가장 잘 반영이 되므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부류로 나누어 변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유어 계열 중 ‘술’은 조리 기구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나지만 다른 어휘는 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자어 계열은 한자를 써 놓으면 그것을 중국어 발음과 한국 한자음 중 어떤 것으로 읽을 것인가에 따라 변이가 나타난다. 외래어는 기층방언에는 없었던 어휘이므로 중국어, 북한어, 남한어를 차용해서 쓰면서 이들 간의 혼합 양상도 나타난다. 세 부류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변이 현상은 표준어화와 중국어의 확대로 종합할 수 있다. 연변 지역 조선어의 기층방언이 조선어 및 한국어의 표준어로 대체되는 양상과 함께 점차 중국어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연변, 조선어, 중국어, 북한어, 남한어, 변이형, 표준어화, 혼합어

\* 이 글은 上海市哲學社會科學規劃項目인 “漢語語言接觸下的中國朝鮮語的變異及其發展趨勢研究” (項目編號: 2016BY003)의 지원을 받았다.

\*\* 복단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1. 서론

본고는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조선어<sup>1)</sup>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어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의 변화와 변이는 음운, 어휘, 문법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중 어휘 면에서 가장 빠르고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조선어와 중국어<sup>2)</sup>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이다. 그리고 이들의 조선어는 함북 방언에 기반을 둔 연변 방언과 한반도 남쪽의 남한어, 한반도 북쪽의 북한어가 섞여 있다. 동시에 중국어도 한자로 표기되므로 이 한자를 중국어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 한자음으로 읽을 수도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영어계 외래어로 나누어 각 부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족의 언어에 대해 다룬 논의는 권기영(1988), 張興權(1994), 강희숙(2003), 이장송·신경식(2004), 한성우·오성애(2016), 박경래(2018), 박경래·곽충구 외(2012) 등이 있다. 권기영(1989)는 연길시에 생활하고 있는 100명의 부동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혼합적 이중언어 현상 즉 조선어에서 중국어음을 직접 음차하는 현상이 있음을 밝혔다. 張興權(1994)는 중국의 조선어가 겪고 있는 언어 접촉을 중국 내 조선어 방언 간의 영향, 북한어와 남한어의 영향, 중국어의 영향으로 나누어 사례를 들어 기술하였다.

강희숙(2003)은 연변대학교에서 열린 백일장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을 대상으로 언어 접촉의 모습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유지하면서 중국어도 함께 사용하는 연변 지역 조선족을 이

1)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편의상 '한국어, 조선어, 남한어, 북한어'란 용어의 구별이 필요하다. 조선족은 '한국어를 '한국에서 쓰는 말'로 여기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한반도와 해외의 한민족이 쓰는 말 모두를 아우르는 개별언어로서의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조선어, 남한어, 북한어' 각각은 한국어의 한 갈래로 차례로 중국 거주 조선족이 쓰는 언어, 한반도의 남쪽에서 쓰는 언어, 한반도의 북쪽에서 쓰는 언어를 가리키고자 한다.

2) 중국에서는 한족(漢族)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어(漢語)'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중국어'로 한족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기에 이 글에서도 '중국어'로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표준 중국어를 가리키고자 한다.

중언어 사용자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한족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이중언어 교육을 받거나 이중적 문화생활을 하게 되면서 중국어 어휘  
또는 중국어의 관용적 표현을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장송·신경식(2004)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신성촌 조선족 공동체  
에서 나타나는 이중언어 사용 양상을 코드 전환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  
들은 주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어로 전환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발화 중에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는 수준의 코드 전환  
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성우·오성애(2016)는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나타난 조선족의 언어사용 양상을 분석해 조선족의 언어에 나  
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후 그 양상을 ‘조선어의 탈색’과 ‘중국어 및 한국어로의  
채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탈색과 채색 양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  
어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에서도 중국어가 더 많이 쓰이고, 조선어가 한국어  
로 상당 부분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래(2018)은 중국 조선족들의 조  
선말과 중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와 이중 언어 사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중국  
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조선족 사회에서 조  
선말은 그 사용이 감소하고 중국어의 사용은 급격히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하  
게 되는데 그 결과 조선말과 중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중국 조선족들은  
단순하게는 중국어 어휘를 간단히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는 코드 혼용과 코드 전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보고하였  
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 사용이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가면 언어교체  
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박경래·곽충구 외(2012)는 조선족 집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변이형의 존재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조사는 중국 지린성(28명), 랴오닝성 단둥(丹東)(12명), 헤이룽장성(黑龍  
江省)(13명), 칭다오(靑島)(13명) 지역의 64명의 체보자를 선정하여 어휘 조  
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조선말의 변이형을 조선말 방언, 규범화한  
어휘, 중국어의 차용, 한국말의 차용 등 유형으로 나누고 어휘 조사를 바탕으  
로 변이형의 실상과 그러한 변이형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살폈다.<sup>3)</sup>

이상의 기존 연구를 통해 연변 지역 및 주요 조선족 거주지의 언어에 대한 양상이 보고되었고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고 어휘 유형에 따른 다양한 변이를 면밀하게 살피는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유형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변 조선족 사회의 언어 사용 양상과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조선족 집단의 언어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아내어 언어 정책을 제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유형과 변이 자료

이 장에서는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유형과 어휘변이 자료를 제시한다. 어휘변이 유형은 어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한다. 이 세 유형의 어휘가 어떤 변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과 설문지도 함께 제시한다.

### 1)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유형

한 언어의 쓰임새에 변형이 일어나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개의 언어 형태가 과생되거나 다중 언어공동체에서 한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언어 변이(language variation)라고 한다. 사회 방언에서는 사회적 변이에 대해 변이어(language variety)란 개념을 적용하고 지리 방언학에서 지역적 변이에 변종(variety) 혹은 방언형이라는 개념을 쓴다.<sup>4)</sup> 언어 변이는 다

3) 조사한 어휘는 친족 어휘와 일상생활 어휘에 대한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 노래방, 혈관주사, 경운기, 위성안테나, 전기밥솥, 냉장고, 사장, 월급, 가위바위보, 양배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것이었다.

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언어 간의 접촉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상호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방언 접촉도 언어 접촉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언어 접촉은 별개의 언어나 방언을 사용하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확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sup>5)</sup> 연변 지역 조선어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언어 접촉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어 및 남한어와 많은 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언어 변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접촉에 의한 언어 변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휘변이이다. 어휘는 차용 및 대치가 쉬울 뿐만 아니라 차용과 대치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은 중국어도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이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중국어 어휘의 차용과 대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기반 어휘들은 더 복잡한 변이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남한어와 연변의 조선어는 뿌리는 같지만 규범의 차이로 외래어의 수용 및 사용 양상에서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외래어가 차용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어휘의 변이양상을 어휘의 기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유어는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닌 한국어 고유의 단어로서 연변 지역의 조선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도 있었던 어휘이다. 한자어는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되는 자체 한자 계열의 어휘이다. 한자어 어휘에서는 중국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변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4) 본고에서는 변이형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조선어 내부의 영향에 의한 변이형뿐만 아니라 언어 간의 변화에 의한 변이형도 두루 포함하고자 한다.

5) 언어 접촉은 종족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어 접촉을 유발하는 종족 이동의 주요 원인은 기근, 홍수, 질병 등의 자연 재해와 전쟁이며, 대규모 교역과 이주 또한 언어 접촉을 수반한다. 언어 접촉은 언어 수렴(language convergence), 어휘 차용,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 재어휘화(relexific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피진어(pidgin) 생성, 크리올어화(creolization), 혼합 언어(mixed language) 생성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2012, 148쪽).

로 외래어는 근대 이후에 받아들인 인구에게 외래어를 뜻한다. 이런 외래어 어휘들은 기층방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조선어는 중국어나 북한어, 남한어 모두에서 차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sup>6)</sup>

## 2)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자료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이 지역의 조선족들에 대한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sup>7)</sup>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과 학교나 기관의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학교나 기관의 조력자를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조사 지역: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연길시<sup>8)</sup>
- 조사 기간: 2019. 2. 10 ~ 25(16일간)
- 조사 대상: 288명<sup>9)</sup>
  - 성: 남성 116명, 여성 172명
  - 연령: 10대 65명, 20대 21명, 30대 67명, 40대 51명, 50대 48명, 60대 36명
  - 학력: 중졸 이상 학력

6) 이 세 유형의 어휘는 본래의 어형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복합, 중첩, 혼효 등을 거친 다양한 어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변 지역 조선어에서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언어 변이를 관찰, 기술, 설명하는 데 흥미로운 자료를 많이 보여준다.

7) 설문지는 310부 중 307부 회수하였으며 유효수는 290부이다. 70대와 80대는 각각 한 명씩 응답을 했으므로 제외하고 288부를 분석하였다.

8) 2020년 기준 용정시의 인구는 121,988명이다. 그중 조선족의 인구는 78,133명으로 전체 인구의 60.43%를 차지한다. 2020년 연길시의 인구는 686,136명이다. 그중 조선족의 인구는 292,263명으로 전체 인구의 42.60%를 차지한다.

9) 본고의 목적은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성, 연령, 학력 변이별로 조사 대상자를 균등하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조사 대상자는 60대 이하의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모두가 정규교육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하였으며 한국

용정과 연길 지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용정은 연변에서 조선족 인구의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며 연길은 연변의 주도(州都)이고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로 두 지역 모두 조선어의 사용이 높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사진 또는 그림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직접 기입하도록 설계되었다. 조선어 혹은 중국어로 답을 작성하도록 하여 복수 응답을 해도 무방하나 조사에서는 복수로 응답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림을 보고 조선어 혹은 중국어로 사물 이름을 쓰세요.  
(请看图片, 用朝鲜语或汉语写出物体的名称.)



\_\_\_\_\_

조사 항목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조선족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에서 선정하였다. 조사 항목은 총 17개로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텔레비전 - 电视, 리모컨 - 遥控器, 선풍기 - 电风扇, 냉장고 - 冰箱, 솥 - 锅, 테이프 - 胶帶, 커튼 - 窗帘, 배추 - 白菜, 고추 - 辣椒, 버섯 - 蘑菇, 토마토 - 西红柿, 감자 - 土豆, 오이 - 黄瓜, 두부 - 豆腐, 라면 - 泡面, 맥주 - 啤酒, 소 - 牛

본고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유형을 나누어 변이양상을 살펴보는 것

방문 경험이나 한국 방송 시청 경험들이 풍부하여 다양한 어휘변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보완조사를 통해 변이별로 균등하게 조사를 하여 변이의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10) 조사 항목의 명칭은 표준 한국어/표준 중국어 또는 가장 널리 쓰는 것으로 제시한다.

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유형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 고유어: 솥 - 鍋, 소 - 牛, 오이 - 黃瓜, 버섯 - 蘑菇, 감자 - 土豆
- 한자어: 배추 - 白菜, 선풍기 - 電風扇, 냉장고 - 冰箱, 두부 - 豆腐, 고추 - 辣椒,  
맥주 - 啤酒
- 외래어: 테이프 - 膠帶, 커튼 - 窗簾, 리모컨 - 遙控器, 텔레비전 - 電視, 라면 - 泡  
面, 토마토 - 西紅柿

### 3.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이 장에서는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어휘변이 양상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살펴본다. 고유어는 연변 지역 조선어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이 지역의 기층방언, 북한의 문화어, 한국의 표준어 등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국어가 개입될 수 있다. 외래어는 최신 문물의 이름이어서 이 지역어의 기층방언에는 없었거나 잘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서 중국어에서 차용한 것, 북한어와 남한어에 차용한 것이 간섭을 일으키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이형을 보여줄 수 있다.

#### 1) 고유어

‘솥’은 음식을 조리할 때 필수적인 도구로서 한국어 방언에서는 ‘솥’과 ‘가마’ 두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연변 지역 조선어의 기층방언에서는 ‘가마’가 많이 쓰였다.<sup>12)</sup> 그런데 이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식의 조리 기구

11) 분량상의 문제로 본고의 논의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항목도 일부 참조한다.

12) 가족구조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오늘날에는 연변의 조선족 집거지에서도 전통적인 ‘솥’을 사용하지 않는다(곽충구·박진혁, 『문학 속의 북한 방언』, 글누림, 2005, 23쪽). ‘솥’을 조사할 때 전통적인



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롭고도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술’의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sup>13)</sup>

['술'의 변이형]

- (1 a) 가마(45), 가매(4), 채소가마(1), 료리가마(1)
  - b) 냄비(50)
  - c) 술(8), 가마술(2)
  - d) 재철(6), 재철이(2), 재처리(3)
  - e) 후라이팬(33), 후라이판(3), 후라팬(1), 흐리이팬(1), 프라이팬(1)
- (2 a) 锅(43), 平底锅(8), 炒菜锅(34), 不粘锅(4), 电炒锅(2), 铁锅(1), 菜锅(1), 煎锅(1)
  - b) 초채귀(3), 초채리(1)
- (3) 채가마(5), 초채가마(1), 炒菜가마(2), 초채가매(1), 쨌비가매(1)

연변지역 조선어의 변이형은 크게 한국어 계열, 중국어 계열, 혼합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a)는 ‘가마’ 계열로서 여전히 기층방언인 ‘가마’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4)</sup> (1b)의 ‘냄비’나 (1c)의 ‘술’은 이전에는 쓰지 않던 것인데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입되어 쓰는 사례이다. (1d)의 ‘재철’ 계열은 이 조리도구가 철로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e)는 외래어 계열인데 이 지역의 기층방언에는 없었거나 드물게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남한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sup>15)</sup> (2)는 중국어

‘술’의 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연변의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조리도구를 제시한 것은 이 도구의 다양한 변이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그림1]과 같은 도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은 이 도구가 ‘술’의 기층방언인 ‘가마’에 대응된다고 본다.

13) 괄호 안의 숫자는 빈도를 나타낸다. 답이 기입되지 않은 설문지도 있어 그 합이 288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술’ 문항은 268명이 답을 했다.

14) ‘가매’는 ‘가마’에 ‘이’가 결합하여 ‘ai > aj > e’와 같은 단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체언 어간 말에 ‘이’가 결합하는 현상은 연변 지역어의 기층방언인 함경 방언에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15) 3.3.의 외래어 변이양상에서 후술하겠지만 외래어는 표기와 발음이 혼란스럽거나 매우 다양하다. 이는 중국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과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이 다른 것 외에도 외래어의 규범화된 표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열로서 (2a)는 이 도구가 다양한 중국어로 불리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2b)는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적은 것으로서 중국어의 ‘锅(궈)’가 연변지역 기층방언인 ‘가마’에 대응함을 보여준다.

(3)은 한국어 ‘가마’ 혹은 ‘가매’에 중국어가 결합된 혼합어들이다. 중국어에서 ‘菜(채)’는 통상적으로 한국어의 반찬 또는 요리를 가리키고 ‘炒菜(초채)’는 기름을 많이 두르고 높은 온도로 볶아내는 요리가 많기 때문에 쓰이는 단어이다.<sup>16)</sup> ‘쨌비가마’는 전을 부칠 때 쓰는 굽이 얇은 조리도구를 가리키는 데 ‘쨌비’는 중국어 ‘煎饼(jiānbǐng)’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sup>17)</sup>

‘솔’이 기층방언, 중국문화, 남한어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변이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다른 고유어는 매우 단순한 양상을 보인다.

#### [‘소’의 변이형]

(4 a) 소(160), 황소(43), 연변황소(1), 누리황소(1), 누령소(1), 암소(1), 한우(1)

b) 牛(65), 黄牛(7), 牛犊(1)

#### [‘오이’의 변이형]

(5 a) 오이(77)

b) 黄瓜(14)

#### [‘버섯’의 변이형]

(6 a) 버섯(100), 표고버섯(3), 팽이버섯(1)

b) 蘑菇(8), 香菇(1)

16) 전통적인 ‘솔’ 또는 ‘가마’가 밥을 짓는 도구로 많이 쓰였다면 이 도구는 반찬이나 요리를 만드는 도구로 쓰이는 양상도 함께 보여준다.

17) ‘쨌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변 조선족의 전통 조리도구는 아니다. 동북 지역의 중국 가정에서 아궁이에 걸쳐 쓰는 납작한 번철을 의미한다. 주로 나물을 볶거나 전을 부칠 때 쓰는 용도인데 조선족이 연변에 정착하면서 받아들인 조리도구이다. 과거의 연변 조선족 가정의 부뚜막에는 보통 두 개의 화구가 있어 하나는 무쇠 가마솥을 걸고 다른 하나에는 쨌비가마를 걸고 조리를 하였다.

## [‘감자’의 변이형]

(7 a) 감자(83)

b) 土豆(10)

‘소’는 (4)와 같은 한국어 ‘소’와 중국어 ‘牛’ 두 계열만 나타나서 변이양상이 다양하지 않다. 이 지역어의 기층방언에서 ‘소’는 ‘쇠(쇠)’인데 서면 조사 결과에서 기층방언이 유지된 어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 내의 표준 조선어 제정과 보급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를 자주 접하는 과정에서 ‘쇠(쇠) > 소’의 대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b)는 모두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한글로 적었다면 ‘牛’는 ‘뉴’로, ‘黄牛’는 ‘황뉴’ 정도로 나타났을 것이다. ‘소’는 ‘술’과 달리 한국어와 중국어의 결합이 나타날 여지가 적다.

‘오이’는 (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오이’와 중국어 ‘黄瓜’만 나타난다. 지역의 기층방언에서 방언인 ‘외(외)’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남북한어의 표준어인 ‘오이’가 널리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면 조사의 제약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태도가 작용한 듯하다. (6)의 ‘버섯’과 (7)의 ‘감자’ 또한 고유어 단일형과 중국어 단일형만이 나타난다.<sup>18)</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유어 계열은 ‘술’을 제외하고는 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술’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 것은 시대에 따른 조리 도구의 변화 및 중국문화와의 접촉, 그리고 전통적인 방언형에 남한어의 표준어와 외래어가 유입된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어휘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단일한 어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변이가 거의 없는 단일한 대응이 일반적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쓰여 온 고유어는 중국어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면서 다른 문화적인 요인이 없다면 변이를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8) ‘오이’(91), ‘버섯’(113), ‘감자’(93) 의 응답자 수가 적은 것은 한 장 사진에 세 개의 사물이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그것에 모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결합으로 생각한다.

## 2) 한자어

‘배추’는 김치의 주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식재료인데 그 어원은 중국어의 ‘백채(白菜)’에서 찾을 수 있다. ‘배추’의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

【‘배추(白菜)’의 변이형】

(8 a) 배추(129), 배채(3), 층배추(2), 양배추(1)

b) 白菜(38), 大白菜(2)

(8a)는 한국어 변이형으로서 ‘배추’와 ‘배채’ 두 가지 어형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추’의 옛말인 ‘비치’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비치’는 본래 한자 ‘白菜’의 중국어 발음 ‘báicài’에서 온 것이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에 따라 ‘백채’라 부를 수도 있지만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어 발음 ‘바이차이’를 차용해 오늘날까지 ‘배채’로 쓰고 있다.<sup>19)</sup> 이런 부류의 어휘를 ‘귀화어’로 분류한다. ‘배추’는 이른 시기에 한국 한자음과는 달리 발음되는 귀화어이기 때문에 고유어와 같이 중국어와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배추’와 달리 현대 문물과 관련된 한자어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과거의 한국어에는 없었던 어휘이므로 이 지역 조선어의 기층방언에도 이 어휘가 없거나 드물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sup>20)</sup>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말은 중국어, 북한어, 남한어에서 차용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선풍기’의 변이형은 그 양상을 잘 보여준다.

19) 중국어의 운모 ‘ai’를 조선말에서 받아들일 때 대부분 ‘ㅐ’로 발음하는데 ‘버채(菠菜, 시금치), 배채(白菜, 배추), 상채(香菜, 고수풀), 대즈(袋子, 가마니), 진채(芹菜, 밭미나리)가 그것이다(권기영, 「연변의 이중언어사용에서의 혼합적현상과 그 폐단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39, 길림성민족사무원회, 1988, 3쪽).

20) ‘선풍기’나 ‘냉장고’ 등은 일제 강점기의 신문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이후 일제 강점기에 한자어 ‘선풍기, 냉장고’를 받아들여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선풍기’와 ‘냉장고’가 널리 쓰이게 되는 시기부터 이를 부르는 말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므로 기층방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풍기(扇風機)’의 변이형]<sup>21)</sup>

- (9 a) 선풍기(198), 산풍기(2), 선풍이(1), 전기선풍기(1)  
 b) 电风扇(73), 风扇(10), 电扇(1), 电风台扇(1), 땡산(1)  
 c) 전기풍선(1)

동일한 대상을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한자에 기반을 둔 단어로 부르지만 한국어에서는 ‘扇風機’를 쓰고 중국어에서는 ‘电风扇’을 쓴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9a)는 한국어 계열인데 표기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한국어 계열은 모두 ‘선풍기’임을 알 수 있다. (9b)는 중국어 계열인데 ‘电风扇’이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어형도 ‘电风扇’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연변 조선족들은 북한어에 바탕을 둔 표준 조선어를 학습했으므로 ‘선풍기’를 주로 쓰다 중국어를 학습하고 중국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도 함께 쓰는 것으로 보인다. ‘땡산’은 중국어 ‘电扇’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9c)의 ‘전기풍선’은 중국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기’는 중국어 ‘电’을 번역한 것이고 ‘풍선’은 중국어 ‘风扇’을 한국 한자음을 읽는 방법으로 간접 차용한 것이다.

‘냉장고’ 또한 현대 문물과 관련된 어형이어서 ‘선풍기’와 유사한 계열의 어휘이지만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날 수 있다. ‘냉장고’의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

## [‘냉장고(冷藏庫)’의 변이형]

- (10 a) 랭장고(128), 냉장고(47), 랭동기(2), 전기랑장고(2), 전자랑장고(1),  
 전기냉장고(1)  
 b) 冰箱(64), 电冰箱(19)  
 c) 땡쌍(2), 땡상(1), 땡상(1), 땡쌍(1), 빙상(1)

21) ‘선풍기’의 조사결과 총합은 289로 설문지 228부 보다 하나 더 많은데 이는 여기서 복수 응답이 나왔다고 본다.

(10a)는 한국어 계열인데 ‘랭장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두음법칙이 적용된 ‘냉장고’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잇소리 현상이 반영된 ‘랭장고[랭장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 조선어 교육의 영향을 보여준다.<sup>22)</sup> (10b)는 중국어 계열인데 ‘屯’의 사용 여부만 다를 뿐 같은 계열이다. (10c)는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적거나 중국어를 한국어의 한자음으로 읽은 것(빙상)들이다.<sup>23)</sup> 이 역시 중국어의 영향을 보여준다.

한자어계 어휘들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한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개인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중 어떤 말을 먼저 접했는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한자로 써 놓으면 그것을 중국어 발음과 한국 한자음 중 어떤 것으로 읽을 것인가, 번역해서 읽을 것인가 글자 그대로를 읽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고 쓰더라도 두음법칙 등과 관련된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연변의 조선족들은 이런 다양한 조건 하에서 다양한 어휘변이를 보여준다.

### 3) 외래어

종이, 천, 셀로판 등의 얇은 소재를 띠 모양으로 자른 뒤 한 면에 점착제를 발라 물건을 봉하거나 붙일 때 쓰는 도구인 ‘접착 테이프’는 흔히 ‘테이프’로

22) 본고의 조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랭장고’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발음은 [랭장꼬]이다. 한 자어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북한 문화어의 영향인데 조선족 표준어가 문화어 규범을 따랐기 때문에 조선족 표준어에서는 ‘랭장고’이다. 조선족들이 남한어를 접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두음법칙 적용 여부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의 규범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화어 규정을 따른 조선어 표준어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한자의 중국어 발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본래의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중국어 ‘冰箱(bīngxiāng)’을 차용할 때 된소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어 계열의 외래어 표기법과 관계없이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발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어 장애음 계열은 평음과 유기음 계열만 있는데 경음 계열도 구별하는 한국어 화자들은 중국어의 평음을 경음으로 듣는다.

줄여서 말한다. 영어 ‘tape’에서 유래한 이 외래어는 연변 조선어에서 매우 다양한 변이를 나타낸다.

['테이프(tape)']의 변이형

- (11 a) 테이프(63), 테프(53), 투명테이프(3), 테푸(2), 비닐테프(2), 접착테이프(1), 접착테프(1), 셀로테프(1)
- b) 반창고(31), 비닐반창고(4), 투명반창고(1)
- c) 반사고(2), 반사꼬(1), 반사코(1), 반사꼬(1), 반산고(1), 반삭고(1)
- d) 膠帶(60), 膠布(20), 塑料膠布(3), 透明膠(9), 塑料膠帶(2), 透明膠帶(2), 粘布(1), 쑤료우쑤우부(1), 쑤부(1)
- e) 썬료반창고(2), 썬료반사꼬(2), 썬료반창고(1), 썬료반삭고(1),

(11a)는 외래어인데 ‘테이프’와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한 ‘테프/테푸’가 거의 대등한 비율로 쓰임을 알 수 있다.<sup>24)</sup> (11b)는 주로 의료용으로 쓰이던 ‘반창고(絆瘡膏)’가 이와 유사한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쓰이는 말이다. ‘반창고’는 1920년대 초반의 신문에도 자주 나타날 정도로 흔히 쓰이던 말이었다. (11c)는 이 지역에 미친 일본어의 영향으로 일본어식 발음 ‘반소코(ばんそうこう)’도 연변 조선족들의 말에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11d)는 중국어 계열로서 외래어와 거의 같은 비율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한어의 ‘테이프’ 앞에 붙는 ‘투명, 비닐, 접착’ 등이 중국어에서도 동일하게 ‘透明, 塑料, 粘’ 등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쑤료우쑤우

24) ‘tape’는 남한어에서는 ‘테이프’로, 북한어에서는 ‘테프’를 표준적인 표기와 발음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남한어에서도 일본식 발음인 ‘테프’도 널리 쓰인다. 따라서 조선족이 ‘테프’를 쓸 때 이것이 북한어의 영향인지 남한어의 영향인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조선족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교재는 북한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으므로 북한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25) 일본어의 영향은 ‘펜토(도시락), 메가네(안경), 닌지(당근), 다마네기/다마네기(양파), 뽕찌(펜치), 스파나(스파너), 쓰레빠/쓰리빠, 게다(깎신), 단스(장롱), 고푸(컵), 텐빠(손전등), 아지나모도(미원), 구찌비(립스틱), 와기(겉옷), 이리꼬(멸치), 뽕쯔(팬티), 작구(지퍼), 간다꾸(원피스), 오꼬시(쌀강정), 간지메/간즈메(통줄임), 바게쯔(물통)’ 등과 같은 어휘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부, ‘쥬부’와 같이 중국어 ‘朧布’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1e)는 중국어와 ‘반창고’의 혼합어로서 ‘반창고’가 주로 천으로 된 재질이었음을 감안해 재료가 천이 아닌 얇고 투명한 소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국어 ‘塑料(씨료/썰료)’의 발음을 한글로 붙였다.<sup>26)</sup>

‘테이프’는 현대 문물이어서 연변 조선어의 기층방언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연변 조선족들은 중국어나 북한어 또는 남한어에서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외래어 대부분을 번역 차용하는 중국에서는 이 물건을 ‘朧帶’와 ‘朧布’라 부르는데 재료의 모양을 나타내는 ‘帶’와 소재를 나타내는 ‘布’ 앞에 점착성을 나타내는 ‘朧’를 붙여 만든 단어이다. 북한에서는 영어 ‘tape’의 일본식 발음 ‘테프’를 쓰고 남한에서는 ‘테이프’를 쓰는데 이와 같은 외래어가 주로 중국어와 함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식 발음인 ‘테프’보다 남한어식 발음인 ‘테이프’의 사용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커튼’은 유리로 된 창문이 일반화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현대 문물이다. 따라서 연변 조선어 기층방언에는 없던 단어이다. ‘커튼’의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

[‘커튼’의 변이형]

- (12 a) 카텐(67), 커튼(34), 카텐(3), 카튼(1), 카턴(2), 가텐(2), 커턴(1), 커테(1), 커턴(1), 커테(1), 카덴(1)
- b) 문발(20), 창문발(1), 창문보(3), 문보(1), 창보(1)
- c) 窗帘(66)

(12a)는 영어 ‘curtain’의 발음을 차용한 외래어 계열인데 일본식 발음 ‘카텐(カーテン)’에서 유래한 것이 남한어의 표준 외래어인 ‘커튼’보다 더 많이 나

26) ‘테이프’의 얇고 투명한 띠는 셀로판(cellophane)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국어 사전에는 ‘셀로판테이프’로 등재되어 있다. 셀로판은 비닐과 성질이 전혀 다르지만 얇고 투명한 성질이 유사해 한국어나 중국어에 각각 ‘비닐’과 ‘塑料’로 쓰이고 있다. 연변 지역 화자들은 중국어 ‘塑料(sùliào)’를 ‘씨료, 썰료’로 발음하고 있는데 이는 첫 음절의 원순성이 있는 중국어 운모 ‘ü’를 발음하기 쉬운 조선어 비원순성 모음 ‘어’로 대체한 것이다.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도 일본식 발음을 따른 ‘카텐’이 쓰이고 있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 이 어형을 배운 영향으로 보인다.

(12b)는 고유어 계열로서 ‘발’과 ‘보’ 두 가지 계열의 복합어로 나타나고 있다. ‘문발, 창문발’은 ‘커튼’과는 모양은 다소 다르지만 용도가 같고 이전부터 써오던 단어여서 ‘커튼’ 대신 쓰고 있다. ‘주렴’을 문에 드리우면 ‘문발’이라고 하고 창문에 드리우면 ‘창문발’이라 하였다. ‘창문보, 문보, 창보’는 모두 이 물건이 천으로 만들어져 창문이나 문을 가리는 용도로 쓰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계열 어휘들이 북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어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12c)는 중국어로서 변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리모컨’은 ‘테이프’나 ‘커튼’보다 더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기기인데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

[‘리모컨’의 변이형]

- (13 a) 리모컨(30), 리모콘(37), 레모콘(6), 이모콘(9), 예모컨(1), 예모콘(1),  
이모티콘(1)
- b) 조종기(3), 원격 조종기(10), 조절기(1)
- c) 遥控器(25), 遥控机(3), 遙控(1), 요콩치(5), 요콩지(4), 요콩(1)

(13a)는 영어 ‘remote control’을 줄인 남한어의 외래어 ‘리모컨’ 계열인데 표기가 매우 다양하다. ‘리모컨’과 ‘리모콘’의 혼용은 남한어에서도 존재하는데 연변 지역 조선어에서도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한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여 쓰게 된 외래어는 상대적으로 어원에 대한 인식이 약해 ‘이모콘, 예모컨, 예모콘, 이모티콘’ 등 원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변이형도 나타나고 있다.

(13b)는 북한어에 기반한 중국 조선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조종기’나 ‘원격조종기’가 남한어에서도 쓰이기는 하지만 ‘리모컨’의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13b)와 같은 어형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3c)는 중국어의 변이형으로서 먼 곳에서 기기를 조정한다는 의미인 ‘遙控’

에 어떤 단어를 덧붙일 것인가만 차이가 날 뿐 같은 계열이다. 그중 ‘요쿵치, 요쿵지, 요쿵’은 ‘리모컨’의 중국어 ‘遥控(机)’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 4. 연변 지역 조선어의 변화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어휘 유형별 변이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변 지역 조선어의 언어 변화 양상에 대해 서술한다. 언어 변화의 양상은 조선어 어휘의 표준어화와 중국어의 확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1) 조선어 어휘의 표준어화

연변 지역의 조선어는 19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진 한민족의 대규모 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함경북도 지역, 특히 육진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주한 후 집단 거주지를 형성함에 따라 함경북도 방언을 기반으로 한 조선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1952년 9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건립되고 북한어에 기반을 둔 중국 조선어 표준어 교육이 실시되면서 이 지역의 독자적인 언어공동체가 더욱 공고해졌다.

연변 지역의 조선어는 해방 후 초기에는 북한 문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어문 규정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바탕은 북한어로 규범면에서는 북한의 문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이 지역의 언어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연변 조선족은 한중 수교 전에는 북한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취업, 유학 등으로 한국 방문이 잦아지고 또 미디어를 통한 한국 문화 수용이 용이해지면서 언어 사용에서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어의 발전 속에서 기층방언 어휘는 표준어화 양상을 보이

고 있다.<sup>27)</sup> 즉, 억양, 발음, 문법형태소 등은 기층방언을 유지하나 어휘는 상대적으로 수용과 대치가 쉬워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유어 ‘가마’는 이 지역 기층방언에서는 ‘가매’였는데 표준어형인 ‘가마’로 대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쓰이지 않았던 ‘술, 냄비’ 등이 넓게 쓰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만 쓰이던 ‘재철’은 사용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서면으로 진행된 조사이고 또 조사대상자들이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로 말미암아 ‘소’와 ‘오이’ 또한 이 지역의 기층방언형인 ‘쇠(쇠)’와 ‘외(외)’를 완전히 대치하고 있다.

남한어의 영향으로 외래어가 기존의 한자어를 대치하는 현상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테이프’가 기존의 한자어 ‘반창고’를 대치하고 ‘커튼’이 ‘문보나’ ‘문발’을 대치하며 ‘리모컨’이 ‘원격조종기’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민족어 교육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이 지역에서 기층방언 사용의 축소 및 어휘의 표준어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응한 10대부터 60대는 대개가 조선족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았다. 다시 말하여 이들은 조선족 학교에서 북한어에 바탕을 둔 중국 조선어를 학습하였다. 따라서 기층방언 어휘보다는 표준 조선어 어휘를 구사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한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미디어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어의 표준어도 습득하게 되었다.

## 2) 중국어의 확산

연변 지역의 조선어 화자들은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중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중국은 1935년부터 중국어 통용어 보급을 추진하였고 중국의 개방화 이후에 중국어의 사용 범위는 더 확대되었다. 조선족 학생은 조선어도 배워야 하고 중국어도 배워야 한다는 이중언어 교육이 실시되면

27) 표기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방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 나이대의 연변 조선족은 표준어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서<sup>28)</sup> 조선족은 중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연변 조선족은 연령에 따라 수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sup>29)</sup>

조선어 화자가 조선어를 사용하는 과정에 중국어를 차용하거나 코드 전환을 하는 현상은 바로 조선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중국어 차용어는 중국어 음을 직접 차용한 직접 차용어와 중국어 음을 조선어 한자음으로 읽는 간접 차용어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의 직접 차용은 흔히 구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조사에서 ‘귀’, ‘초채귀’, ‘쥬우부’, ‘요쿵지’, ‘빙쌍’, ‘맹산’ 등과 같이 중국어 직접 차용어가 표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기풍선, 빙상’과 같은 예들은 중국어를 간접 차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어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직간접으로 차용하는 것은 중국어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변 지역은 조선어에 능한 집단으로 보이나 중국어로 답한 피조사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어 사용의 확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어는 정확한 표기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극히 적은 일부에서 중국어 발음을 조선어로 표기한 예가 나타났다. 그리고 조선어식 중국어의 사용도 매우 적었다. 다만 ‘썰료반창고, 썰료반사고’, ‘쨌비가매’ 등과 같은 혼합어에서 조선어식 중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0)</sup>

28) 연변은 다른 지구들보다 가장 먼저 자기 민족의 언어와 중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중국어를 과목에 배정하였다(전병선,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이중언어학』 제7권 1호, 이중언어학회, 1990, 158쪽). 조선족 학교 교육 과정은 195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매주 3시간씩 중국어를 배웠고 1959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매주 5시간씩 중국어를 배웠으며 1963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국어를 배웠다(박태형, 「중국 조선족학교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12권 제11호, 이중언어학회, 1995, 403쪽). 이 과정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선족의 중국어 교육은 유치원부터 진행되고 있다.

29) 2022년 중국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통용어 보급률은 80.72%이며 식자층의 비례는 95%에 이른다. 요즘 조선족 사회에서도 중국어 습득은 필수이고 조선어 습득은 선택이다.

30) ‘餡料’를 ‘썰료’라고 발음하여 운모 ‘i’를 발음하기 쉬운 다른 모음으로 대체한 것, ‘煎餅’은 두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중국어 복운모 ‘ing’을 조선어 단모음 ‘이’로 단순화하여 발음하는 등 중국어 발음이 개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발음이 임의적으로 다른 발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노년층이나 중국어가 숙련되지 않은 조선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족의 중국어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고는 어휘 조사를 통해 연변 조선족의 어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형의 존재를 확인하고 언어 사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변이형은 기층방언, 표준 중국 조선어, 북한어, 남한어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중국어 요소, 일본어의 영향에 의한 요소도 있으며 중국어와 조선어의 혼합어, 중국어와 일본어의 혼합어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사한 어휘는 그 사용에서 한국어 계열 어휘화 중국어 계열 어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이중언어 화자의 언어 사용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두 계열의 어휘 빈도를 보면 한국어 계열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는 이 지역의 조선족은 아직은 중국어보다 한국어의 한 갈래인 조선어에 더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휘 변이형을 고찰한 결과 기층방언의 사용 비율이 높지 않고 표준어 사용 비중이 높아 어휘는 표준어를 지향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는 표준 중국어를 지향하고 있으나 직접 음차어, 간접 음차어의 사용에서 중국어의 사용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변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선족 사회에의 언어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사 대상 어휘가 적고 조사 대상 어휘의 다양한 변종을 개별 변인에 따라 분석하지 못한 것 역시 한계로 남는다. 세대, 연령, 직업 및 학력에 따른 특성이 언어 사용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약하며 논의를 마친다.

## ■ 참고문헌

- 강용택, 「중국조선어의 어휘적 특성 형성배경에 대하여」, 『한중미래연구』 2,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4, 3~19쪽.
- 강희숙,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 『사회언어학』 제11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3, 1~24쪽.
- 곽충구·박진혁, 『문학 속의 북한 방언』, 글누림, 2005.
- 곽충구,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2000, 1~41쪽.
- 권기영, 「연변의 이중언어사용에서의 혼합적현상과 그 폐단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39,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88, 3~6쪽.
- 김기창, 「조선족소학교 조선어문 교과서를 통해 본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언어 차이」, 『유관순 연구』 제14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9, 99~129쪽.
- 렴광호, 「연변의 이중언어현상특점」, 『중국조선어문』 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89, 6~8쪽.
- \_\_\_\_\_, 「연변의 이중언어사회에 대한 분석」, 『이중언어학』 7, 이중언어학회, 1990, 188~196쪽.
- 박경래·곽충구 외,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12.
- 박경래, 「중국 지린성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와 언어 사용 양상」, 『사회언어학』, 제2권 4호, 2018, 57~90쪽.
- 박용한, 「언어 접촉에 대한 사회언어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사회언어학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28권 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20, 173~202쪽.
- 박태형, 「중국 조선족학교에서의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 제12권 제11호, 이중언어학회, 1995, 401~405쪽.
- 오선화, 「연변방언 체언 어간말 ‘-이’의 재구조화와 그 성격에 대한 일고찰」, 『중국조선어문』 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1, 16~22쪽.
- 원미진, 「재미 동포의 한국어 사용에 나타난 변이어 연구」, 『어문론총』 제 65호, 한국문화언어학회, 2015, 71~88쪽.
- 이장승·신경식, 「중국 조선족의 언어전환에 관한 연구: 흑룡강성 하얼빈시 성고자진의 조선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12권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4, 207~230쪽.
- 전병선,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이중언어학』 제7권 1호, 이중언어학회, 1990, 153~166쪽.
- 정승철, 「방언접촉과 언어 변화」, 『崔明玉先生 停年 退任 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2010.
- 최길원, 「룡정시 조양천진 룡포촌 조한 두 민족의 이중언어사용상황통계」, 『중국조선어문』 4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90, 35~36쪽.
- 최희수, 「중국 조선민족 이중언어 역사개황」,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1990, 137~144쪽.
-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2012.
- 한성우·오성애, 「단체 대화방에 나타난 조선족 언어의 탈색과 채색」, 『우리말연구』 46, 우리말학회, 2016, 111~142쪽.
- 한성우, 「중국 청도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정체성」, 『방언학』 14호, 한국방언학회, 2011, 113~136쪽.
- \_\_\_\_\_,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전환」,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411~438쪽.

- \_\_\_\_\_, 「한민족 통일 시대를 위한 '민족어'의 성찰과 모색」, 『어문학』 127호, 한국어문학회, 2015, 113~139쪽.
- 曹秀玲, 「延边地区汉语-朝鲜语双语现象说略」, 『双语教育研究』 2014年第1卷第3期, 2014, 26~34쪽.
- 張興權, 「从语言接触看朝鲜族德语使用和朝鲜语的共时变异」, 『民族语文』 1994年第5期, 1994, 59~64쪽.

## A Study on the Vocabulary Variations of Korean Language in Yanbian

Wu xianhua\* · Han Sungwoo\*\*

Based on a written a vocabulary survey for Chinese Korean people living in Yanbia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xical variation of Korean language and the direction of change in Korean language through it. Since its formation with the North Hamgyong dialects as the base dialect, Korean language in Yanbian has undergone changes with the influence of Chinese, Chinese Korean,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languages. Since these influences are best reflected in the vocabulary, the data on the variation in three categories : native tongue, Sino-Korean words, and loanword are collected. Among the native tongue, ‘sot’(pan) shows many variants due to changes in cooking utensils and lifestyle, but other words show little variation. For Sino-Korean word,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variations appear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read as Chinese pronunciation or Korea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Loanwords are words that did not exist in the base-dialects, so they are borrowed from Chines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and are a mixture of these languages. The variation in the three categories of vocabulary can be summarized as standardization and expansion of the Chinese language.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basic dialect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Yanbian region is replaced with the standard language of Chinese Korean and South Korean, Chinese is gradually spreading

**Key words:** Yanbian, Chinese Korean, North Korean, South Korean, variants,

---

\* Associate Professor of Fudan Univ. Department of Korean

\*\* Professor of Inha Univ.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tandardization, mixed language

